

문무왕의 **복교신앙과 문화유산** 18 청주(靑州) 용흥사(龍興寺)

한국불교 초기 교리는 인과



특성 출토 불상. 삼국시대의 불상으로 높이는 4.9cm의 작은 불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불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최초 불상 중국 북방서 유래 1959년 특검서 최초전래기 불상 발견

불교가 우리나라에 수용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시 동북아시아에 급격히 유행하던 불교가 우리나라에 밀려 왔으리라고 본다. 기록에 의하면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공식적으로 나타났다. 전진(前秦) 황제였던 부견(苻堅, 338-385)이 고구려에 승려 순도(順道)와 불상 및 불경을 보냈다는 사료를 통해 불교의 전래가 짐작된다.

남은 사료와 유물이 부족해 초기 전래된 불교의 모습이 어땠는지, 어떤 시으로 불교를 신앙하게 됐는지 명확히 알 길이 없다. 오로지 몇 줄의 사료를 통해 당시의 상황만을 짐작 할 뿐이다.

372년 순도 스님이 중국으로부터 불상과 불경을 갖고 우리나라에 왔고, 같은 해에 아도(阿道) 스님이 동진(東晉)으로부터 왔다. 이에 초문사(肖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가 지어졌다. 백제는 침류왕(枕流王) 원년인 384년 불교가 수용됐고, 신라는 5세기 초반에 전래 됐지만 6세기 초반에야 공식적으로 불교가 수용됐다.

당시 불교 신앙은 아주 단순했던 것으로 짐작 된다. 전래 초기의 교리는 주로 인과(因果)에 관한 것으로 인과를 통해 화와 복을 받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이런 불교의 인과율은 당시 왕실에도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 고국양왕이나 백제 아신왕은 불교를 믿어 복을 받으려는 내용의 교지를 내렸다. 당시 사람들은 복잡한 교리가 아닌 단순하지만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불교의 모습에 매료됐던 것으로 보인다.

1959년 서울 한강 특검서에서는 불교가 이 땅

에 전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 만들어진 불상이 발견됐다. 이 불상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수입된 불상인지,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불상인지, 우리 땅의 불상이라면 고구려·백제 어느 곳에서 제작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다.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전래된 당시에는 간다라 양식이나 당시 중국 북방에서 제작된 불상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많다. 특검에서 출토된 불상은 이런 사실을 짐작케 하는 사례이다.

이 불상은 5호16국 시대에 유행하던 사자좌상(獅子座上)의 선정불 양식으로 제작됐다. 얼굴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으며 두 손은 깍지를 긴 듯 놓여 있다. 높이 4.9cm의 이 불상은 선정에 잠긴 부처님의 법열을 표현하고 있다.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녹슬었지만 깊은 명상에서 얻어지는 희열이 얼굴에 녹아 있다. 이 시기의 불상이라면 거의 석가모니불상으로 추정된다. 당시 중국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유행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불상의 대부분은 석가모니불이었을 것이다.

어느 시대·지역에서 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북방에서 유행하던 선정의 흐름이 불상 안에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대 선불교와는 다르다. 인도로부터 서역을 거쳐 중국 땅에 들어온 선정은 불교의 중요한 수행방법이자 중요한 신앙의 형태로 여겨졌다. 북위시대 많은 승려들이 맥적산에서 선정 수행을 했다. 이런 선정수행 중심의 불교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됐다고 불상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복교사건이야기** 63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산을 내려가면 큰일이 있잖아요? 큰 절 아래로 내려가면 또 뭐가 있죠?” / “사바세계.” / “사바세계?” / “스님은 사바세계에서 왔어요?” / “그럼, 해진지도 거기서 왔지.” / “큰스님두?” / “응.” / “왜 모두가 사바세계에서 왔죠?”

20여 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에서 어린 해진 스님은 후원 부뚜막 앞에 앉아 저녁을 짓고 있는 기봉 스님에게 그렇게 물었다.

이태 전, 영화를 찍었던 영산암에 갔었다. 기봉 스님 대신 한 스님이 영화 속 요사로 나왔던 송암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장작불 위로 해진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모두가 사바세계에서 왔죠?” 그날도 암자에는 모두 사바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사진부 차장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25도 불설아미타경

삼화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경>을 설하시니 사리불과 모든 비구, 일체 세간의 천인, 아수라 등이 설법을 듣고 기뻐하고 예배하며 물러갔다. 내용을 도상화한 것이다.

화면 오른쪽에는 구름에 싸인 전각이 있고, 그 앞에는 설법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구와 천인과 아수라 등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 앞에는 무릎 꿇고 설법을 듣는 사리불이 배치돼 있다. 다음은 청명염불자(稱名念佛者)들이 극락왕생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내용은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니, 사리불과 여러 비구들, 모든 세상의 하늘사람, 사람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믿어 받아서 예배하고 물러갔다(佛說此經已舍利弗及諸比丘一切世間天人阿修羅等聞佛所說歡喜信受作禮而去)”고 말하고 있다.

우익 대사의 <아미타경요해>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정토의 가르침은 불가사의하다. 그것은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아무도 부처님께 그것에 관해 물어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지혜로서 상황을 보시고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조건이 무르익었음을 아셨다. 이리하여 부처님께서 질문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정토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중생들이 진리를 들음으로써 해탈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해 해탈을 입고, 악행을 피해 해탈을 입고, 그리고 무상의 진리를 체험해 해탈을 인도해 주었다. 부처님의 정토법문은 때맞춰 내리는 비와 같아 듣는 사

람들이 ‘즐거이 믿어 받았다’ ‘즐겁다’는 것은 그들이 몸과 마음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말이다. ‘믿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심이나 의문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들이 모두 예배했다’는 것은 그들이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에 감격해 그분에게 의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러갔다는 것은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수행하고 결코 물러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 내용을 통해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비로서 때맞춰 내리는 단비와 같이 설법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 설법을 모든 중생들이 즐겁게 받아 지니면서 모든 의심을 끊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됐으며,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러한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물러나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임을 또한 새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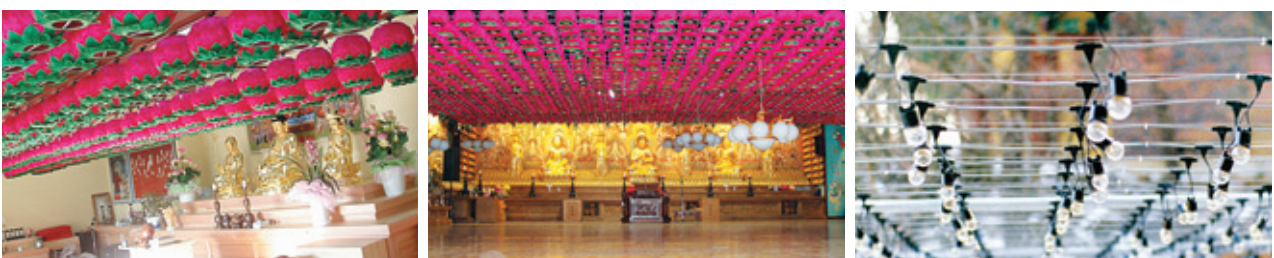
선학 스님 (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제25도 덕주사판, 1572년간행, 반곽(半郭) 28.2×21.0cm.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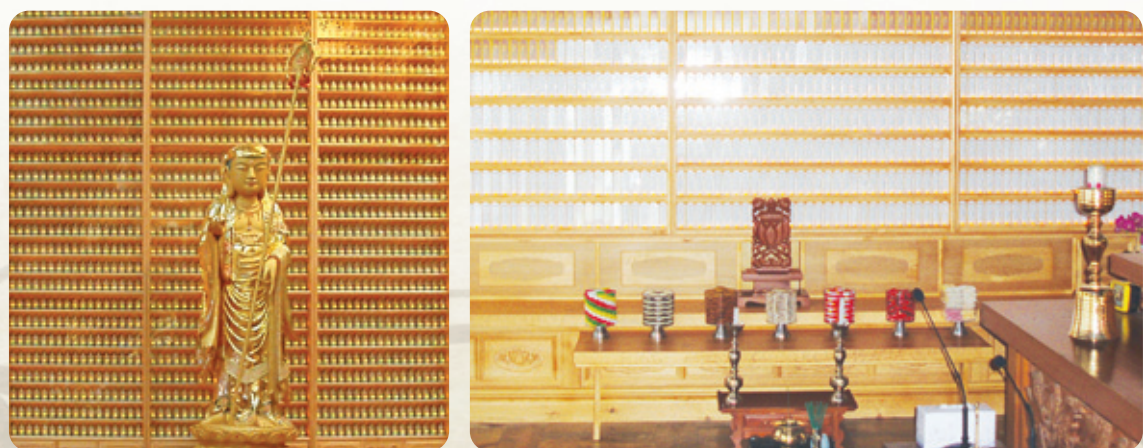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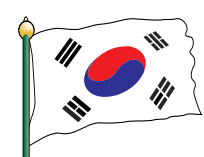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흥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서늘하므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 내열 ABS
내열특성: 연화점온도가 100~120℃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 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